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작업

살아 있는 생태의 보고 고양시 하천 탐방



고양시에는 국가하천 한강을 비롯해 공릉천과 창릉천 등 지방하천 18개, 소하천 60개 등 79개의 하천이 있다. 고양하천네트워크는 에코코리아, 고양자연생태연구회, 어린이식물연구회 등의 단체와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해 고양시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종을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하천의 건강성을 파악하고 도시생물 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정보를 축적해나가고 있다.

글. 사진. 고양하천네트워크



중상류 생태계의 표본, 공릉천

북한산과 한강을 잇는 중요한 생태축으로, 고양시 구간은 수량이 풍부하고 깨끗하여 중상류 하천의 생태계를 잘 보여준다. 에코코리아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공릉천 상류구간을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시민 모니터링해왔다. 이를 통해 멸종위기야생생물 I 급인 수달을 비롯하여 멸종위기야생생물 II 급인 수리부엉이, 흰목물떼새, 샛의 서식을 확인하는 등 이제까지 식물 53과 168종, 육상곤충 84과 163종, 조류 27과 54종, 담수무척추동물 38과 68종, 어류 8과 28종을 확인했다. 특히, 수달 흔적의 발견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로, 공릉천-북한산 생태축의 건강성을 대표하는 지표가 될 것이다.



주민의 노력으로 되찾은 생태계, 대장천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에서 시작하여 신평배수펌프장에서 도촌천과 만나 한강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으로, 고양시가 하천 수질정화의 일환으로 원능수질복원센터에서 복원된 재이용수를 활용하면서 일정 수량이 유지되고 하천 수질이 개선돼왔다. 2019년에는 대장천생태습지가 완공되기도 했다. 고양자연생태연구회는 대장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는데 확인한 철새들만 여름철 꼬마물떼새, 제비, 백할미새, 알락할미새, 노랑할미새, 쇠백로, 중대백로, 왜가리, 겨울철 청둥오리,

알락오리, 황오리 등이다. 대장천생태습지에는 4월 잉어 산란 철이 되면 붉은색으로 혼인색을 띤 잉어들이 줄줄이 올라오는 게 목격되기도 하는데, 습지 데크 물길 위쪽으로 주민들이 직접 '붕어, 잉어, 가물치 물고기 보호구역'이라는 안내판을 붙여 놓기도 했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생태하천을 돌려주고자 하는 고양시의 노력이 주민의 자발적인 환경보호로 이어지는 따뜻한 예라 하겠다.



고양시 최초의 금개구리 서식지, 도촌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발원하여 토당동에서 한강으로 합류하는 지방하천으로, 상류 구간은 건달산천으로 불린다. 도촌천은 어린이식물연구회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해 오고 있는데 2017년 9월 고양시 최초로 금개구리를 발견해 당시에 핫한 뉴스가 되기도 했다. 금개구리는 2012년 5월 21일 멸종위기종 야생동물 2급으로 지정된 한국의 고유종으로 앞다리가 뒷다리보다 발달해 있으며 암수 모두 울음주머니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주요 하천 생태교란식물 중 하나인 가시박을 먹는 왕담배나방이 발견되어 지속적인 관찰을 해오고 있기도 하다.



다양한 종이 공생하는 곳, 대화천

고양생태공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강사들과 하천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하천생태동아리를 결성해 2018년부터 모니터링 활동을 해오고 있다. 대화천의 대표 깃대종은 2012년 5월 31일 멸종위기 야생동물 II 급으로 지정된 붉은발말뚝개이다. 개이 등이 사각형이고 집게발과 이마가 붉은색이며 말뚝 뱀새가 난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 장항습지에서 드물게 관찰되다 대화천 모니터링 과정 중 2019년 7월



생태교육



도촌천에서 촬영된 금개구리



처음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종으로만 식물 총 53과 133종, 곤충은 총 8목 54과 114종 정도가 된다. 백로과 새들이 물고기를 먹고 살고 민물가마우지도 잠수하여 사냥하는 모습이 자주 관찰되며, 대화천 인근 아파트 옥상에서 황조롱이가 번식하기도 했고, 노랑할미새도 오랫동안 머물며 하천변에서 번식을 하기도 한다.

공공일자리를 활용한 생태계교란식물 제거 활동

고양시는 생태하천 보전활동을 위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고양희망청년인턴 등 공공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단풍잎돼지풀, 환상덩굴,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 외래식물 제거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생태전문 지식을 갖춘 신중년 드림하천 매니저를 선발하여 현장관리인력으로 활용하고 고양하천네트워크 모니터링 단체에서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생태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이런 과정으로 참여자의 생태감수성을 제고하고 생태교란식물의 발달 단계에 따른 맞춤형 제거로 작업 효율도 올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모니터링까지 실시할 예정이어서 단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생태하천 보전, 시민 환경운동 확산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양하천네트워크 모니터링 단체

하천생태동아리(순순회)	010-2247-8692
고양자연생태연구회(이정희)	010-5295-4213
어린이식물연구회(심은영)	010-2209-6082
에코코리아(이명혜)	010-3204-6834